

# 인간 김남준의 목적... 더 나은 어른 위한 '아카이브'

윤형근 화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첫 정규음반 발매  
윤 화백의 작품 '청색'을 앨범 커버 속 벽에 걸어놔

“그러려면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해. 천진무구한 세계로 들어가야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게 인간의 목적이거든.”(RM ‘윤(Yun)’에 삽입된 윤형근 화백 육성(肉聲) 내레이션 중(中))

예술가의 천진무구한 성품(性品)에서 ‘영원불변한 예술’이 만들어진다. ‘한국 단색화의 거목(巨木)’이라 불리는 고(故) 윤형근(1928~2007) 화백의 가치관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28·김남준)이 지난 2일 발매한 솔로 정규 1집 ‘인디고(Indigo)’는 윤 화백에 대한 헌사이자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따라가려는 RM의 다짐이다. “그는 말했지 늘, 먼저 사람이 돼라 / 예술 할 생각 말고 놀아 느껴 호로에라”(“윤” 중)를 지향점으로 삼은 이유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I wanna be a human)”고 노래하는 까닭이다.

특히 이번 음반은 RM이 그간 해온 말과 걸어온 행보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가 애정을 보낸 것들에 대한 진심을 더 깊이 알게 만든다. 지난한 근면대사를 뚫고 온 한국 예술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같다”(RM, 미국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 중)던 그는 한 “시커렇게 탄 심장 / 재를 뿌린 그 위에 시를 쓰네 / 사선을 오갔던 생각 /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남긴 것들에게 / 나 역시 그저 좀 더 나은 어른이길”(“윤”)이라고 바란다.

개인 작업실 ‘알카이브(Rkive)’(RM+아카이브(archive))(인스타그램 계정도 같은 이름)에서 자신이 보고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아카이빙해온 RM은 첫 공식 음반인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적으로도 아카이빙을 한다.

윤 화백의 성에서 제목을 따온 ‘윤’을 이번 음반의 첫 트랙으로 삼은 RM은 앞서 빅히트뮤직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음악도 그림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라 어떤 삶, 어떤 사유, 어떤 서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래가 좋다” 음악이 좋다’는 것보

다 결국 그 노래를 쓰고 부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인디고’는 그런 저의 의지·사유가 담긴 산물”이라는 얘기다.

윤 화백의 화풍은 표백 처리를 하지 않은 천·마포 등의 위에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추사 김정희 등 서화를 고매한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여겼던 옛 선비정신과도 맞물린다는 평을 들었다. 윤 화백의 작품 ‘청색’을 앨범 커버 속 벽에 걸어 놓은 RM은 이러한 선비 정신을 잇고자 한다. 역시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미국 네오 솔(Soul)의 여왕 에리카 바두(Erykah Badu)가 참여한 점도 그렇다.

앨범 제목을 ‘인디고’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디고’는 청춘을 상징하는 쪽빛, 남색을 뜻한다. 주로 청바지에서 많이 드러나는 색인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특징이다. 이전 ‘모노’가 가진 흑백과 대조되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나이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RM은 “저의 모든 음악이 제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지만, 이번 앨범은 특히 더 김남준다운 앨범이예요.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했다.

조혜림 플로 콘텐츠 기획 매니저(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는 “윤형근 화백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RM의 ‘인디고’는 수묵화의 농담에서 색이 번져가는 듯, 수많은 종이 섞인 들쭉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RM이 존경하는 윤형근 화백은 ‘작품은 그 사람의 흔적이자 분신’이라 말했다”고 짚었다.

RM은 지난 2015년 첫 믹스테이프 ‘RM’, 2018년 두 번째 믹스테이프 ‘모노’를 발매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먼저 공개한 이전 곡들과 달리 정식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디고’를 처음 구상한 건 2019년. RM이 그림에 빠지기 시작한 직후다. 그는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도중인 2018년 미국 시카고미술관에서 리처드 세라·모네·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그 후 한국 화가들에 대해 공부했고, 직접 미술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사실 방탄소년단 래퍼 라인인 RM의 이



번 음반은 힙합 색깔이 강하게 묻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RM은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기 전 언더그라운드 힙합 크루 ‘대남협’(대남조선힙합협동조합)에 속해 있었다. 방탄소년단도 출발은 힙합 아이돌 그룹이었다. 그런데 RM은 자신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10개 트랙이 실린 이번 음반에서 네오 솔, 힙합, 일렉트로닉,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아우르는 동시에 국내외의 메인·인디스트림을 가로지르는 다양성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인디고라는 색에 대해 저마다 남색, 파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것이라며 이 앨범도 각자 색채의 ‘그라데이션(graduation)’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RM은 기대했다.

‘인디고’의 타이틀곡 ‘들꽃놀이’엔 ‘남만 고양이’로 유명한 밴드 ‘체리필름’의 보컬 조유진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화려하지 않던 금세 사라져 버리는 ‘들꽃’이 아닌, 잔잔한 ‘들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RM의 바람이 담긴 곡이다. 방탄소년단과 꾸준히 작업해온 ‘서태지 밴드’의 닥스킴(DOCSKIM)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곡의 맛을 살렸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방탄소년단이 해온 음악의 연장선상에 가장 가까운 팝”이라고 들었다. 뮤직비디오

는 하늘의 불꽃, 들뜬 들꽃 그리고 화려한 공연장의 장면들을 오가며 시네마틱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미국 R&B 솔 듀오 ‘실크 소닉’ 멤버인 앤더슨 팩(Anderson .Paak)이 함께 한 ‘스틸 라이프(Still Life)’의 제목은 ‘정물’이란 뜻.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RM은 이 단어에서 ‘아직도 삶’이라는 의미를 읽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중의적인 해석을 더했다.

3번 트랙 ‘올 데이(All Day)’는 RM이 어릴 때부터 ‘히어로’로 여겨온 힙합그룹 ‘에픽하이’ 멤버 탈블로가 힘을 보탰다. 인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이 피쳐링한 ‘건망증’은 포크. 이번 앨범 수록곡 중 RM이 가장 먼저 작업했는데 어쿠스틱 기타, 휘파람 그리고 작업실에 있는 책상을 두드리고 청바지를 비비며 또 장난감을 치는 등 언플러그드 소리로만 녹음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마할리아(Mahalia)와 한국계 캐나다인 R&B 힙합 뮤지션 폴 블랑코(Paul Blanco)가 함께 한 ‘클로저(Closer)’의 프로듀싱은 영국 일렉트로닉 듀오 ‘혼네(HONNE)’가 맡았다. 혼네는 ‘모노’ 수록곡 ‘서울(Seoul)’에서 호흡을 맞춘 팀이다. 우리가 항상 안고 다니는 스마트폰 너머의 생각과 감정들을 담았다.



## 서지혜·홍수현·이상우 전하는 상대적 박탈감 'TV 조선 빨간 풍선'

TV 조선 새 주말극 ‘빨간 풍선’이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 공감을 선사한다.

5일 TV 새 주말미니시리즈 ‘빨간 풍선’이 2인·3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17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될 TV 조선 새 주말미니시리즈 ‘빨간 풍선’은 우리 모두가 사달리는 상대적 박탈감, 그 배 아픈 욕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달래려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아슬아슬하고 뜨끈한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 서지혜는 ‘빨간 풍선’에서 교사가 꿈이지만 매번 임용고시에 낙방해 과외 일을 다니는 ‘조은강’ 역, 배우 홍수현은 패활한 성격에 세련된 스타일까지 겸비한 보석 디자이너 ‘한 바다’ 역을 맡아 ‘조은강’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등장한다. 배우 이상우는 ‘한바다’의 남편이자 피부과 의사인 ‘고차원’으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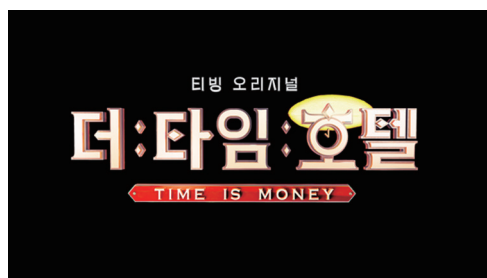
서지혜와 홍수현의 2인 포스터에서는 같은 하얀 색의 드레스를 입은 ‘조은강’과 ‘한바다’가 180도 전혀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드러워 시선을 사로잡는다.

걸어가고 있는 포즈의 ‘한바다’를 의자의 앞은 ‘조은강’이 마치 잡으려는 듯 손을 꼭 붙이고 있는 상태. 부드러운 표정의 ‘한바다’와 달리 ‘조은강’은 냉기 서린 표정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서지혜·홍수현·이상우가 한자리에 모인 포스터는 3인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조은강’은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묘한 긴장감을 일으킨다. ‘한바다’는 해맑은 미소로 절친인 ‘조은강’을 꼭 끌어안은 채 행복함을 드러내고 있는 터. ‘고차원’은 포용하고 있는 두 사람의 뒤로 의중을 알 수 없는 눈빛을 내뿜으며 ‘한바다’의 한쪽 어깨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욕망을 품은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 사람의 비밀스런 욕망은 과연 무엇일지, 운명의 굴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빨간 풍선’ 스토리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제작진은 “놀라웠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는 ‘조은강’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게 될 ‘한바다’의 강렬한 모습을 2인 포스터에 투영하고자 했다”며 “3인 포스터에서는 ‘빨간 풍선’ 속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폭발적인 서사를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 시간은 돈이다...3억 건 생존게임 '더 타임 호텔'

시간이 돈인 호텔에서 생존 게임이 펼쳐진다.

티빙 예능물 ‘더 타임 호텔’은 돈 대신 시간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시간이 다 쓰면 순간 체크아웃 된다. 레스토랑부터 카페, 토크쇼까지 돈 대신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투숙객 10명은 게임을 통해 상금인 시간을 획득하며, 승자 1명에게는 최대 상금 3억원이 주어진다.

프로게이머 홍진호를 비롯해 개그맨 황제성, 가수 존박, 댄서 모니카, 래퍼 래원,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주연우 PD)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연자 신지연과 멘사 출신이나온서 김남희, 배우 김현규, 그룹 ‘시그니처’ 클로이도 참가한다. 연합, 거짓, 배신, 음모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펼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공개.

## 김수미 “전원일기”는 내 고향...김혜자 ‘회장님네’서 만나고파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 방송



tvN STORY 예능물 ‘회장님네 사람들’의 김수미가 5일 인터뷰를 공개했다.

‘회장님네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표 원로배우 김용건, 김수미, 이계인이 만나 제2의 전원라이프를 즐기는 프로그램. 그동안 ‘전원일기’

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최불암, 김혜정, 박순천, 조하나, 박은수, 이숙, 남성진, 임재무, 임현식 등과 김혜자와 고두심도 짝꿍 목소리 출연으로 반가움을 더했다.

김수미는 ‘회장님네 사람들’ 출연 제의에 바

로 확답을 했다고 밝히며 “늘 그림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반가웠다. ‘전원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회장님네 사람들’을 통해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20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전원일기’ 케미스트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전원일기’ 이후 꾸준히 연이따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 물었다. 김수미는 “김용건 씨와 김혜자 선생님과과는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며 “촬영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김혜자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려곤 했다. 프로그램에 나왔던 많은 전원 가족들과 앞으로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수미는 ‘회장님네 사람들’만의 차별점으로 ‘자연스러움’을 뽑았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프로그램 ‘전원일기’에서 수많은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 해온 만큼,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케미스트리가 더욱 빛나는 것. 김수미는 “미리 설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 생활하는 게 ‘회장님네 사람들’만의 특별함”이라며 “다들 출연진이 아니라 친척들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촬영 현장도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회장님네 사람들’을 통해 경험해보고 싶은 전원 라이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리운 ‘전원일기’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김혜자 선생님이 ‘회장님네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며 “‘전원일기’는 내게 고향이고, ‘회장님네 사람들’은 친정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회장님네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20분에 방송된다.



## 서정연 ‘트롤리’·‘사랑의 이해’ 잇따라 캐스팅

배우 서정연이 드라마 ‘트롤리’와 ‘사랑의 이해’에 출연을 확정했다.

먼저, SBS TV 새 월화드라마 ‘트롤리’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 중 서정연은 ‘중도’(박희순 분)와 인연이 있고, 그 아내인 ‘혜주’(김현주 분)와도 허물없는 친자매 같은 사이이자 부부의 든든한 지원자인 ‘현여진’으로 분한다.

JTBC 새 수목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각기 다른 이해(利害)를 가진 이들이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理解)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드라마다.

이 작품에서는 극 중 ‘하상수’(유연석 분)의 엄마 ‘한정임’ 역을 맡아 모자(母子) 케미스트리를 뽑낼 예정이다.

한편, 서정연은 현재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윤현우(송중기 분)의 어머니로 활약하고 있다.